

네이버·삼성SDS 등 기업용 AI 선점... B2B 시장 '정조준'

오픈AI·MS·구글등 기업용 AI 공세 SKT·KT 등 국내 대기업들 맞붙 LMM 이어 기업용 AI서비스 초점 자사 클라우드에 LLM 형식 접목

네이버, 삼성SDS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AI시장 선점 전략으로 B2B(기업간 거래) 카드를 들고나섰다. 개인용 거대언어모델(LLM)에 이어 기업용 AI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기업용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빙 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또 구글도 워크스페이스용 듀엣AI 출시를 알렸다.

앞서 챗GPT, 빙 챗엔터프라이즈, 듀엣AI 모두 기업용 AI서비스로 3사 모두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국내 네이버, KT, 엔씨소프트, 삼성SDS 등의 대기업들도 기업용 AI 서비스 발걸음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

LLM 기반의 생성형 AI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드는 만큼 기업용 AI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분석이다.



/픽사베이

자사 클라우드에 LLM 서비스 형식을 접목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각 사의 방향에 맞게 생성형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오픈AI는 최근 챗GPT 비즈니스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선보였다. 개선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28일 발표한 블로그 글에서 Canva, 에스

티로더, PwC 같은 기업들이 초기 사용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가 출시된 이후 9개월 간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80%가 챗GPT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블록, 캔바, 에스티로더, PwC 등이 초기 고객사라고 전했다.

MS도 기업용 챗봇인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지난달 출시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검색엔진 빙에서 제공되며, 기업의 상업용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면

서 업무용 AI 기반 채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도 기업용 AI 서비스인 구글 미트, 구글 챗, 구글 닥스, 구글 시트, 지메일 등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인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듀엣(Duet) AI'를 출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30달러(약 4만원)의 요금을 책정했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도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 KT가 IT 업계에서는 네이버, LG그룹 AI연구실 등이 기업용 AI 서비스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기업·공공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대화 및 고객센터 등 통신사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해온 에이닷 LLM ▲윤리적 답변 및 대용량 텍스트 입력에 강점이 있는 엔트로픽의 LLM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한 코난 LLM 등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 및 사업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KT는 파라미터 2000억 개 이상인 LLM '민음'을 개발하고 있다. 민음은 이르면 올해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에 자사 클라우드에 AI관련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달 초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대화형 AI 챗봇 '클로바 X'를 내부 서비스와 연동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툴 '프로젝트 커넥트X'와 AI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등을 준비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논문 등을 학습한 '엑사원(EXAONE) 2.0'을 토대로 전문가용 대화형 플랫폼 '유니버스' 등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삼성SDS는 다음달 12일 '리얼 서밋 2023'에서 기업용 올인원 생성형 AI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중 최초로 엔씨소프트는 AWS마켓플레이스에 바르코LLM을 출시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 제작, 비주얼 콘텐츠 제작,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한 스크립트 작성 등에 바르코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기업들을 시작으로 AI경쟁이 더 구체화 되고 있다. 대화형 LLM에 이어 산업별 니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를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용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업용 AI서비스 모델 개발로 수익원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시도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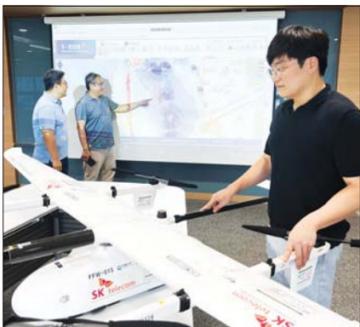
SKT, UAM 선도... 상공망 기술 개발 본격화

UAM 통합솔루션·시뮬레이터 개발 드론 통해 측정된 데이터 분석 툴 활용 측정결과 지도·그래프·도표 시각화

SK텔레콤이 UAM(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상공망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 SK텔레콤은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실·예측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SKT는 300~600m의 운항 고도와 100~150km/h의 순항 속도로 도심·준도심·관광지역 상공 항로를 비행하는 UAM 기체와 유사한 통신 환경을 갖춘 드론을 활용,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다.

SKT가 이번에 개발한 통합 솔루션은 드론을 통해 측정된 상공망 품질 데



SKT 직원들이 드론을 통해 UAM용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분석하는 모습. /SKT

이터를 분석 툴을 활용해 실시간 표시하고, 측정 결과를 지도·그래프·도표로 시각화해 나타낸다.

또 통화·SNS·동영상 시청 등 UAM 탑승객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적용해 상공망의 통신 서비

스 품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T는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개발했다.

SKT가 자체 개발한 상공망 통신 품질 예측 시뮬레이터는 비행 경로·고도 설정, 안테나 높이, 상향 틸트, 지향 각도 및 빔 패턴 등 통신 품질에 변화를 주는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통합 분석할 수 있어, 기지국 설치 환경, 지상망 간섭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한 상공망 투자비 산출 및 최적 설계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하다. 또 SKT는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최적의 기지국·안테나 설정값을 추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 모델을 개발하여 상공망 품질을 높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중소업체, 50인미만 기업 유예연장 '목소리'

최소 2년유예 반드시 필요 호소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27일부터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배조웅 수석 부회장, 이명모 인력정책본부장이 이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방문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불과 5개월 후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

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들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다. 특히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근로자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 산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SK하이닉스, 고려대 반도체과 전원 美 대학서 공부한다

UC 데이비스서 1쿼터 간 유학

SK하이닉스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데이비스에서 공부시킨다.

SK하이닉스는 30일 고려대와 UC 데이비스와 함께 학생 파견 협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가 2021년 개설한 계약학과다. 이번 협정을 통해 2학년년부터 전원 UC 데이비스에서 1쿼터

간 유학할 수 있다. 지역 홈스테이에 거주하며 등록금과 체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SK하이닉스는 학생들이 향후 리더로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차원에서 UC 데이비스와 연구 분야 국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공학과가 첨단기술의 중심에서 더 나은 세

상을 만들어가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협약 체결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오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연구개발·설계 등 직무 대상 공고

한화오션이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8월 3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으로 편입 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신입사원 채용으로 연구개발, 설계, 생산, 영업,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9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

지원요건은 연구개발은 석사이상, 그 외 직무는 학사이상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면접 순이다.

한화오션은 직무소개, 재직자 인터뷰, 채용 홍보행사 일정 등 지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이크로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